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김 현 식

(경희대학교)

이 글에서는 이주자 출산력 문헌과 동질혼 문헌의 이론적 자원들을 이용하여 결혼이주 여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가설을 정립하고, 2012년 출산력조사와 다문화조사를 분석하여 이들 가설을 검증하였다. 다문화조사로부터 조선족 출신 여성,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 출신 여성, 베트남 출신 여성, 필리핀 출신 여성을 추출하여 출산력조사로부터 얻은 한국 여성과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의 출산 위험(hazard)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자녀 출산 위험의 경우 베트남 출신 여성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과 유사한 출산 위험을 보였으나 조선족 출신 여성과 중국 출신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출산 위험을 보였다. 둘째 자녀 출산 위험을 분석하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과 그리 다르지 않은 출산 위험을 보였으며, 중국 출신과 조선족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낮은 출산 위험을 기록하였으나 후자의 경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은 이주자 출산력 이론 중 사회화 가설과 동질혼 이론 중 부족가설을 교차하여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용어: 결혼이주 여성, 출산력, 출산 위험, 이주자 출산력 이론, 동질혼 이론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0726)

IRB No. KHSIRB-15-051(EA), 경희대학교

■ 투고일: 2018.1.30 ■ 수정일: 2018.2.27 ■ 게재확정일: 2018.3.2

I. 서론

21세기 시작과 함께 나타난 가장 의미 있는, 혼인 관련 변화 중 하나는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와 이러한 국제결혼의 점진적인 하락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전체 결혼 건수에서 약 3.5%를 차지하던 국제결혼 비율은 2005년 13.5%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5년에는 7.0%의 수준으로 떨어졌다(통계청, 2017).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부부에서 더욱 두드러져 2000년 6,945건이었던 결혼 건수는 2005년 30,719건으로 급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4,677건을 기록하였다.

그 규모에 있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변하는 경향을 보이는 국제결혼은 단일민족국가 표방해온 공동체 의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서, 지대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결혼의 규모 변화뿐 아니라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정태적 연구에 더해 국제결혼의 형성 과정, 유지 양태, 해체 경향과 같은 동태적 과정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도, 한국의 지속적인 초저출산체제(lowest-low fertility regime)에 대한 실천적 함의로 인해 국제결혼 여성들의 출산력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자료의 생산 및 발굴과 더불어 현재도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출산율을 제고하여 인구고령화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 속에서, 고출산율 유지 국가 출신 여성의 결혼 이주로 인한 출산율 제고 및 젊은 층의 대체 이주라는 사회적 기대가 현실화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와 정착과정에 관한 조사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력 조사를 통합하여 분석한 김두섭(2008)은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수가 한국 여성의 자녀수보다 적으며,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발견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발견은 2010년 인구및주택총조사를 분석한 Kim, Kim과 Jun(2012)에서도 나타나 이주여성의 조사 당시 현재 자녀수는 한국 여성보다 적었다.

반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분석한 김현식(2015)은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그리고 첫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분석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 사이 출산 위험(fertility hazards)의 차이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사한 방법으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분석한 Kim에 따르면 결혼이주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위험이 한국 여성의 그것에 비해 낮으나 둘째 자녀 출산위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Kim, 2018).

이러한 연구들에 비해 유정균(2015)과 유삼현(2017)의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이 높다는 발견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출생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등록외국인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한 유정균은 결혼이주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한국 여성보다 높으며, 출산까지 걸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한국 여성이 길다는 발견을 보고하였다. 앞선 Kim, Kim, 그리고 Jun의 연구(2012)와 동일하게 2010년 인구및주택총조사 1% 표본자료를 분석한 유삼현(2017)은 해외출생 여성이 한국출생 여성에 비해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지만 낮은 완결출산율을 보인다는 언뜻 보기에 모순적인 결론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때로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삼현과 유정균의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이 높다는 발견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선행 연구들은 결혼이주 여성과 혼인한 한국 여성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반면, 이들의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과 모든 한국 여성의 출산율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한국에서 혼외 자녀 출산은 매우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Kim, 2017),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을 한국 여성에 포함시키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반면 혼인한 한국 여성만을 대상으로 결혼이주 여성과 비교하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배경으로 이 논문에서는 결혼한 한국 여성과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율을 비교한다. 이 연구에서 혼인하지 않은 한국 여성을 제외하고 혼인한 한국 여성을 결혼이주 여성과 비교하는 것은 결혼이주 여성이 결혼이라는 조건 하에 이주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과 혼인한 한국 여성을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비교 전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않은 이주 여성을 비교하는 것도 올바른 비교일 것이나, 한국에서 이주 여성의 대부분은 결혼이주 여성일 것이고, 우리가 실제 분석하는 자료도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한국 여성도 결혼한 여성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별 차별출산력을 살펴보고자 결혼이주 여성 전체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추론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사례를 보유한 몇몇 출신 국가들의 결혼이주 여성으로 비교 대상을 한정한다. 이 연구가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 여성의 차별출산율을 살펴보고자 하는 첫 연구는 아니지만(예를 들어, 김두섭, 2008), 이 연구는 사회 이론에 근거하여 가설들을 설정하고 경험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가설들을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선행 연구들과 궤를 달리한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이 속한 부부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이루어진다는 관찰에 근거하여, 사회 이론적 자원을 이주자 출산력 연구 문헌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질혼 문헌 또한 활용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구분된다. 이러한 이론적 시도는 출산이라는 사건이 부부 중 한 명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동의와 합의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부관계를 중요시하는 출산 행위 이해라는 전세계적 연구 경향을 반영한다(Bauer & Kneip, 2013; Corijn, Liefbroer, & Gierveld, 1996; Kim, 2018; Thomson, 1997).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두 문헌의 결합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율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김현식(2015)에서 처음 나타났고, Kim(2018)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 결혼이주 여성은 세 가지 형태의 이주자가족 중 한 유형으로 다루어졌다. 덧붙여 결혼이주 여성은 출신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졌지만,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과 결혼이주 여성만이 비교의 대상이 되며, 특히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출신 국가별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 차이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들과 다르다. 이론적 배경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처럼, 사회 이론적인 면에서 출신 국가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율 수준이 다른 것이라고 예측할 여러 근거들이 있어, 다양한 하위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한 선행 연구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김승권 등, 2012)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전기택 등, 2013)를 결합하여 분석한다는 면에서 Kim(2018)의 후속 연구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자료 및 변수의 처리, 그리고 통계 모형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다만 결혼이주 여성 전체를 살펴보

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출신 국가별 차별출산력을 살펴본다는 취지에 맞추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로부터 사례가 충분히 커서 비교가능성에 큰 문제가 없는, 중국 조선족,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여성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차별출산율 검정을 위해 Kim의 연구는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rneau & Grambsch, 2000)만을 활용하였는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보다 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콕스 모형에 더해 이산시간 위험 모형(discrete-time hazards model: Singer & Willet, 2003) 또한 추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다음의 <표 1-1>은 김현식(2015)이 제안하고 Kim(2018)이 발전시킨, 한국인 가족과 비교한 다문화 가족의 출산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각 이론에 따른 출산력 격차 예측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표의 행은 다문화 가족의 출산력에 대한 전통적 논의인 이주자 출산력 이론을 보여주고 있으며, 열은 동질혼 이론의 선별가설과 부족가설을 보여주고 있다. 각 칸은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는데, “++”, “+”, “0”, “-” 표시는 각각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거나, 다소 높거나, 유사하거나, 다소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의미한다. 또한 각 칸의 표시는 심표를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선하는 표시는 첫째 자녀 출산 위험(fertility hazard)으로 측정한 상위 순위 자녀에 대한 출산율을 나타내고, 후행하는 표시는 둘째 자녀 출산 위험으로 파악한 하위 순위 자녀에 대한 출산율을 보여준다. 표의 제목에 적어 놓은 것처럼, 이 표는 출신 국가의 출산력이 한국보다 높은 경우를 상정하고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출신 국가의 출산력이 한국과 유사한 경우는 아래 <표 1-2>에서 따로 기술하였다.

표 1-1. 이주자 출산력 이론과 동질혼 이론에 따른 출산 순위별 출산 위험 예측: 출신국가의 출산력이 한국보다 높은 경우

		동질혼 이론	
		부족가설	선별가설
		- , -	+ , +
선별가설			
이주자 출산력 이론	이주특성선별	++ , ++	+ , +
	한국지향선별	0 , 0	- , -
	사회화가설	+ , +	0 , 0
	적응가설	+ , 0	0 , -
	혼란가설	0 , +	- , 0

위 <표 1-1>에 소개한 것처럼 이 논문에서는 이주자 출산력 이론을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요약하지만, 선별가설은 선별 특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자 출산력 이론은 다섯 가지 이론적 관점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김두섭, 2008; 김현식, 2015; Abbasi-Shavazi & McDonald, 2000; Adserà & Ferrer, 2015; Kim, 2018; Vatterott, 2015).

선별가설은 결혼이주 여성이 출신 국가의 여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주특성선별에 의한 측면을 먼저 살펴보자. 결혼이주 여성은 출신 국가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대해 보다 낙관적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측면이 있다(김현미 등, 2008; 설동훈 등, 2005). 이러한 특성들은 보다 높은 출산율과 연관되어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율은 출신 국가의 다른 여성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출신 국가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다면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율은 한국 여성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표 1-1>의 이주특성선별가설을 “++”로 표시하였다. 덧붙여 결혼이주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출산율 수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 위험이 동일한 표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지향선별은 결혼이주 여성이 한국인들과 유사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향성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한 동인이라는 관점이다

(Vatterrott, 2015). 이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이주 여성이 자녀에 대한 가치나 가족에 대한 규범이 한국 여성과 유사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출산율에 있어서도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나 규범, 지향성 등과 같은 특성들은 한국에 이주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위험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예측들은 <표 1-1>에서 “0, 0”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반해 사회화가설은 결혼이주 여성은 출신 국가에서 태어나고 결혼으로 이주하기 까지 자라고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출신 국가에서 지배적인 규범 및 가치관, 그리고 행동 양식을 담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은 어렸을 때 형성되고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이주 전 특성들을 여전히 지니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출산 행위에 있어서도 출신 국가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출신 국가의 출산율이 한국에 비해 높다면 한국 여성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이게 될 것이며, 그 수준은 첫째나 둘째 자녀의 구분 없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화가설의 출산율 수준은 “+, +”의 표식을 띠고 있다.

사회화가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적응가설은 이주 전까지는 출신 국가의 가치관과 사회규범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회화가설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정착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사회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점차 정착 국가의 사회규범과 가치관에 동화되어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적응가설은 지금까지 소개한 이주자 출산력 이론들과 다르게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 행위가 시간에 따라 변할 것이라는 동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입장에 따르면, 출신 국가의 출산율이 한국에 비해 높다면, 한국 여성의 출산율에 비해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율이 이주 초기 높다가 점차 유사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예측에 근거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율은 “+, 0”의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주자 출산력 이론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설은 혼란가설이다. 혼란가설은 이주 과정에서 익숙하게 지내던 사회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이주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 여성은 친숙했던 출신 국가의 사회적 관계를 떠나 남편뿐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를 새로 만들기 시작해야 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과 다른 생활양식에 맞닥드릴 수밖에 없다. 불확

실성과 불안이 지속되는 이주 초기의 정착 속에서 자녀 출산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출산 위험은 낮을 것이다. 하지만 이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출신 국가에서 지니고 있던 생활 유형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혼란가설은 적응가설과 유사하게 시간에 따른 출산 위험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출신 국가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다면, 하위 자녀에 있어 출산 위험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론적인 논의에 따라 혼란가설은 “0, +”의 출산 위험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주자 출산력 이론은 출신 국가에서 결혼한 부부가 같이 이주한 경우를 상정하여 출산율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을 이론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혼이주 여성은 자신이 이주자이기는 하지만 출산은 자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남편과의 동의 및 합의 혹은 논의하에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남편을 포함하는 가족의 관점에서 출산 행위를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Bauer & Kneip, 2013; Corijn, Liefbroer, & Gierveld, 1996; Kim, 2018; Thomson, 1997).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는가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틀인 동질혼(assortative mating)에서 이론적 자원을 결합하는 것이 보다 풍부하고 적절한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김현식, 2015; Kim, 2018).

이런 인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동질혼 이론의 부족가설과 선별가설을 차용하고자 한다(이명진, 2000; Fu, 2008; Surra & Boelter, 2013). 부족가설에 따르면 유사한 특성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지며 유사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결합은 당사자들이 속한 집단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혼이주 여성은 상당히 다른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남성과의 결합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속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기 어렵다. 실제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시댁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질적 연구들이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남부현, 오정아, 2013). 이러한 부족가설에 따르면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율이 한국 여성의 출산율에 비해 낮을 것이며, 부족가설은 시간에 따라 사회적 지지나 도움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으므로 <표 1-1>에 “-, -”라고 표시하였다.

이에 반해 선별가설은, 앞서 이주자 출산력 이론의 선별가설과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이질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은 자신이 국제결혼에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 또한 국제결혼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혼이주 여성 또한 국제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질혼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 높다. 이러한 잠재적인 태도의 개방성은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Fu, 2008), 선별가설에 따르면,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율이 한국 여성의 출산율에 비해 다소 높을 것이므로, 위의 표에서 “+, +”로 표시하였다.

<표 1-1>의 각 칸은 이러한 두 가지 커다란 이론적 예측이 결합하는 부분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의 상대적 출산 위험의 예측 방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주자 출산력 이론의 선별가설 중 이주특성선별에 따르면 “+, +”의 출산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데, “-, -”라고 예측하는 동질혼 이론의 부족가설과 결합하면 “+, +”의 출산 위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의 표시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였다. 나머지 칸들의 표시들은 위에서 서술한 이론적 방향에 따라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더 이상 상세히 논하지 않기로 한다.

<표 1-1>은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조금 후에 살펴볼 것처럼 결혼이주 여성의 모든 출신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아래 <표 1-2>에서는 출신 국가의 출산력이 한국과 유사한 경우 출산 위험의 예측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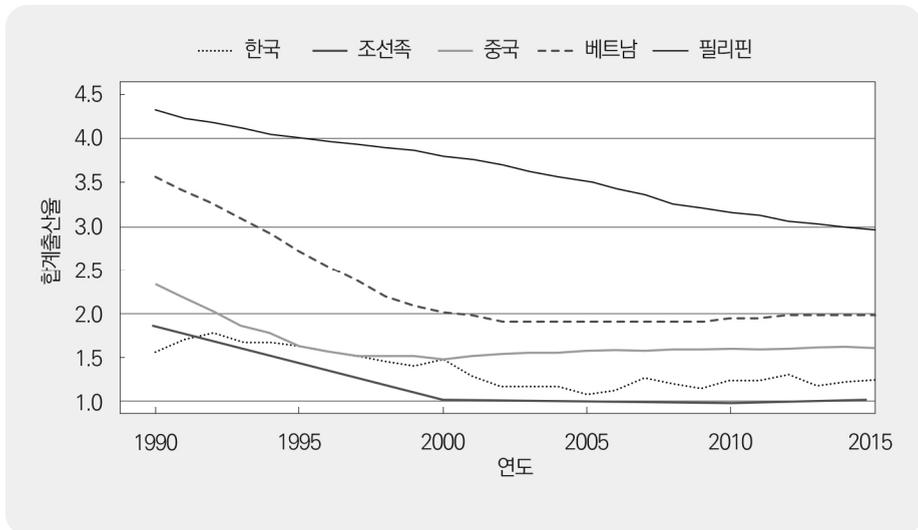
표 1-2. 이주자 출산력 이론과 동질혼 이론에 따른 출산 순위별 출산 위험 예측: 출신 국가의 출산력이 한국과 유사한 경우

		동질혼 이론	
		부족가설	선별가설
		- , -	+ , +
선별가설			
이주자 출산력 이론	이주특성선별	+ , +	0 , 0
	한국지향선별	0 , 0	- , -
	사회화가설	0 , 0	- , -
	적응가설	- , 0	- - , -
	혼란가설	0 , 0	- , -

<표 1-2>가 <표 1-1>과 다른 점은 이주자 출산력 이론에 있어 출산 위험의 예측 방향이나 강도이다. 예를 들어, 이주자 출산력 이론 중 선별가설의 이주특성선별을 살펴 보면,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 출신 국가의 높은 출산율에 더해 결혼이주 여성의 선별성이 더해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출산 위험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국과 유사한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에서 왔다면 선별성만 나타나 다소 높은 수준의(“+”) 출산 위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지향 선별의 경우 한국인들과 유사한 가치관과 규범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출신 국가의 출산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출산 위험의 방향이나 정도는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 표에서 동일한 표시를 보이고 있다. 사회화가설이나 적응가설, 혼란가설의 경우도 앞서 기술한 이론적 입장에 따라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면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논문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국과 비교한 출신 국가의 출산율 수준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논문에서 다루는 국가들의 출산율 수준 변화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분석 사례들의 출신국가별 합계출산율 변화



자료: 조선족 관련 1990년과 2000년 자료는 김두섭, 2003, 2010년 자료는 인민넷, 2012. 기타의 자료는 World Bank, 2017.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처럼, 자료의 문제로 인해 이 논문에서 출신 국가는 중국 조선족,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자료는 World Bank(2017)로부터 획득하였으며, 중국 조선족의 출산율에 대한 자료는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김두섭(2008)과 인민넷(2012)으로부터 얻었다. 물론 중국의 출산율은 조선족을 포함한 출산율을 뜻하는 것이지만 조선족이 소수 민족임을 감안하면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여성들은 모두 2000년 이후 결혼한 여성들이므로, 중국 조선족과 중국의 출산율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표 1-2>의 예측이 가능하고,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므로 <표 1-1>의 예측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

위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하 출산력조사: 김승권 등, 2012)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다문화조사: 전기택 등, 2013)를 결합하여 분석한다. 출산력조사는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전국 단위의 횡단면 조사로 2012년 조사는 조사 당시 결혼 상태에 있는 15세부터 49세 이하의 여성을 모집단으로 실시하였다. 2010년 인구및주택총조사를 표본틀로 설정하여 전국을 6개의 층으로 층화한 후 360개의 조사구에서 18,000 가구를 표집하였고, 최종 자료 수집은 14,970 가구에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2년 4월 23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다문화조사 또한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반복 횡단조사로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 2012년 다문화조사는 국제결혼 이주자들과 귀화 한국인,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다단계층화표집을 통해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19,646 가구를 추출하여 15,341 가구로부터 응답을 얻어 응답률이 78.1%에 달했다. 다문화조사는 출산력조사 시기와 겹치는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 사이

에 이루어졌다.

이 논문의 분석은 Kim(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출신 국가에 따른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를 추출하고 결합하였다. 우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두 조사를 결합하기 위해 비교가능한 사례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조사 시점에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혼인 여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혼인은 국제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혼인에만 한정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기술하는 모든 변수에서 결측자료가 없는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2,443명의 한국 여성이 출산력조사로부터 추출되었으며, 조선족 여성 676명, 중국 출신 여성 1,035명, 베트남 출신 여성 1,849명, 필리핀 출신 여성 1,026명이 다문화조사로부터 선택되었다. 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Kim의 연구에서 설계한 재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재가중치를 적용하면 한국 여성과 조선족, 중국,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여성은 각각 95.0%, 0.7%, 0.8%, 1.7%, 0.4%를 대표하고, 100%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사례는 사례가 부족한 국가 출신이거나 결혼이주 남성 및 부부 이주자 가족이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출산 위험의 적격 기준을 고려하여 원자료를 첫째 자녀 출산 자료와 둘째 자녀 출산 자료로 구성하였다. 첫째 자녀 출산 자료는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첫째 자녀 출산 위험이 있는 여성들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둘째 자녀 출산 자료는 첫째 자녀를 낳은 시점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둘째 자녀 출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만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를 낳지 않은 여성은 둘째 자녀를 출산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2. 변수 측정

종속 변수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첫째 자녀 출산 자료에서 분석 시간은 결혼 년도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걸린, 연 단위로 측정한 시간이며, 둘째 자녀 출산 자료에서 분석 시간은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걸린

시간이다. 자료가 횡단자료 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까지 첫째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거나, 둘째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경우 우측 절단(right-censoring)으로 처리하였다.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는 출신 국가이다. 출신 국가 변수는 한국 여성, 조선족 여성, 중국 여성, 베트남 여성, 필리핀 여성의 범주를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범주는 출산력조사로부터 얻었으며 뒤의 네 범주는 다문화가족조사로부터 얻었다. 출산력조사에서도 소수의 다문화가족이 있었으나 범주의 명확성 제고와 다문화가족조사와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출산력조사에 들어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은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 다시 말해 이 논문에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인과적 관점에서 추론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즉 혼동 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김현식, 2017a; Morgan & Winship, 2007). 현재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동 변수로 부부 특성과 아내 특성, 남편 특성, 그리고 가구 특성으로 나누어 측정된 후 회귀분석에서 이들을 통제하였다. 부부 특성으로는 혼인 년도와 혼전 자녀 여부, 그리고 둘째 자녀 출산 자료에서 첫째 자녀 성별을 측정하였고, 아내와 남편 특성으로는 각각 조사 시 연령, 교육수준, 재혼 여부, 취업 여부를 기록하였으며, 가구특성으로는 거주형태,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거주 지역을 선택하였다(김두섭, 2008; 김현식, 2015; Abbasi-Shavazi & McDonald, 2000; Adserà & Ferrer, 2015; Fu, 2008; Kim, 2018; Vatterott, 2015).

혼인 년도는 2006년 이전과 2006년 혹은 그 이후의 두 범주로 이루어진 변수로 2006년 이전에 0의 값을 주고 그 외에 1의 값을 주었다. 2006년을 구분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2005년에 국제결혼 건수가 정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 하향세를 유지하기 때문이다(통계청, 2017). 혼전 자녀 여부는 결혼 시점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지를 범주화한 변수로 그런 자녀가 있으면 1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었다. 자녀의 성 선호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에 주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둘째 자녀 출산 자료를 분석할 때 첫째 자녀의 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Chung & Das Gupta, 2007), 이 변수를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남아의 경우 0의 값을 주었고 여아의 경우 1의 값을 주었다.

아내와 남편의 특성 중 연령은 30세 미만과 그 이상의 두 범주로 이루어진 변수로, 20대이면 0의 값을 주었고 30대 이상이면 1의 값을 주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의 네 범주로 측정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첫

번째 범주를 기준(baseline)으로 나머지 세 범주 각각을 지칭하는 세 개의 가변수(dummy variable)를 생성하였다. 재혼 여부는 현재의 결혼이 초혼인지 재혼인지를 구분하는 변수로 초혼이면 0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1의 값을 주었다. 취업 여부는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변수로 취업을 하고 있으면 1의 값을 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주었다.

가구 특성 중 거주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첫 번째 범주를 기준으로 나머지 세 범주 각각을 지칭하는 세 개의 가변수를 만들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과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 개의 범주로 만들었으며, 회귀분석에서는 2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나머지 두 범주를 각각 지칭하는 가변수를 만들어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은 서울과 기타광역시, 그리고 그 외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첫 번째 범주를 기준으로 나머지 두 범주 각각을 지칭하는 가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3. 분석 방법

이 논문에서는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에서 흔히 사건사분석이라고 불리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에서는 출산까지 걸린 시간과 사건 수를 측정하여 출산율을 계산하였으며, 조금 더 생생한 분석을 위해 카플란-마이어 곡선(Kaplan-Meier curve)을 제시하였다. 혼동변수(confounding)를 통제하기 위한 회귀분석으로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적용하였으나, 비례위험 가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산시간 위험 모형(discrete-time hazards model) 또한 사용하였다(Singer & Willet, 2003; Therneau & Grambsch, 2000). 이들 모형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김현식(2017b)를 참조하기 바란다.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R에서 이루어졌다(김현식, 2017a).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표 2. 분석 자료의 기술 통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찰 년수	출생아수	1년 당 출생아 수	관찰 년수	출생아수	1년 당 출생아 수
전체	20,212	8,099	0.401	21,448	4,567	0.213
아내 출신 국가						
한국	19,429	7,830	0.403 ***	20,771	4,468	0.215 ***
조선족	187	55	0.295	185	22	0.119
중국	208	56	0.268	149	19	0.129
베트남	316	131	0.414	276	44	0.159
필리핀	72	28	0.384	67	13	0.193
부부 특성						
혼인 년도						
2006년 이전	10,001	4,048	0.405 ***	14,997	3,124	0.208 *
2006년 혹은 이후	10,212	4,052	0.397	6,451	1,443	0.224
혼전 자녀 여부						
없음	19,587	8,022	0.410 ***	21,192	4,552	0.215 ***
있음	625	77	0.123	256	14	0.056
첫째 자녀 성별						
남아				10,757	2,301	0.214 *
여아				10,691	2,265	0.212
아내 특성						
연령						
20대	2,664	1,202	0.451 *	1,703	329	0.193 *
30대	17,549	6,897	0.393	19,745	4,237	0.21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7,233	2,973	0.411	8,100	1,770	0.218 **
2-3년제 대학	4,351	1,758	0.404	4,363	954	0.219
4년제 대학	7,356	2,974	0.404	7,931	1,681	0.212
대학원 이상	1,273	395	0.310	1,055	162	0.154
재혼 여부						
초혼	19,638	8,050	0.410 ***	21,332	4,552	0.213 ***
재혼	574	49	0.085	117	15	0.127
취업여부						
미취업	11,338	4,967	0.438 ***	12,696	2,814	0.222 ***
취업	8,875	3,132	0.353	8,752	1,752	0.200

표 2. 계속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찰 년수	출생아 수	1년 당 출생아 수	관찰 년수	출생아 수	1년 당 출생아 수
전체						
남편 특성						
연령						
20대	1,216	524	0.431	643	136	0.211
30대 이상	18,997	7,575	0.399	20,805	4,431	0.213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6,294	2,702	0.429	7,173	1,470	0.205 **
2-3년제 대학	3,062	1,241	0.405	3,201	753	0.235
4년제 대학	9,262	3,527	0.381	9,144	1,992	0.218
대학원 이상	1,594	629	0.395	1,930	351	0.182
재혼 여부						
초혼	19,532	8,024	0.411 ***	21,252	4,545	0.214 ***
재혼	681	75	0.110	196	21	0.108
취업여부						
미취업	474	151	0.319	411	46	0.111 *
취업	19,738	7,948	0.403	21,037	4,521	0.215
가구 특성						
거주 형태						
자가	9,921	3,961	0.399 ***	10,860	2,443	0.225 ***
전세	6,739	2,747	0.408	6,780	1,324	0.195
월세	2,580	971	0.376	2,843	507	0.178
기타	971	420	0.433	966	292	0.303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1,304	536	0.411	1,264	216	0.171 ***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9,776	3,974	0.406	10,499	2,091	0.199
400만 원 초과	9,132	3,589	0.393	9,685	2,260	0.233
거주 지역						
서울	3,875	1,286	0.332 ***	4,001	685	0.171 ***
광역시	4,570	1,970	0.431	5,475	1,150	0.210
기타	11,767	4,844	0.412	11,973	2,732	0.228

주: * <0.05, ** <0.01, *** <0.001. 주어진 변수의 모든 범주별 출산 생존 곡선이 같다는 영가설을 검정하는 Log-rank 검정 결과임.

<표 2>는 첫째 출산 자료와 둘째 출산 자료의 관찰 년 수와 출생아 수, 그리고 출생아 수를 관찰 년 수로 나눈 1년 당 출생아 수를 보여주고 있다. 설명 변수의 모든 범주에서

생존 분포가 동일하다는 영가설(null hypothesis)을 검정하는 로그-랭크(Log-rank) 검정 결과의 p-값을 나타내는 표시 또한 덧붙였다(Therneau,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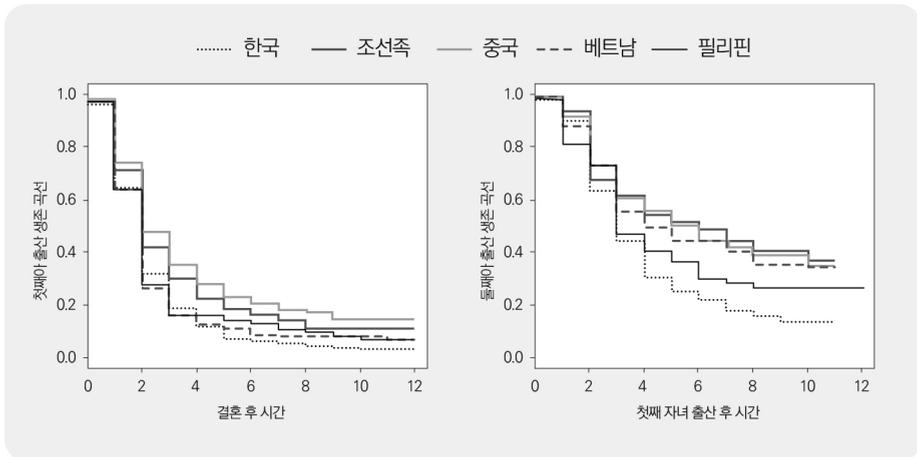
첫째 자녀출산 자료에서 관찰한 시간은 20,212년이며, 이 자료는 사례수가 약 10,000만 명이 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한 명당 약 2년이 관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찰 년 수 동안 8,099명이 태어나서 1년 당 약 0.401명이 태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자녀출산 자료에서는 21,448년을 관찰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아이는 4,567명으로 1년 당 약 0.213명이 태어났다. 이는 첫째 자녀 출산율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자녀 출산을 꺼려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별 첫째아 출산율을 살펴보면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여성들이 유사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조선족이나 중국 여성들의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아 출산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중국과 조선족 여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출신 국가별 출산율의 차이를 좀 더 생생하게 살펴보기 위해 자녀 순위별 출산 생존 곡선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y-축은 여전히 해당 아이를 낳지 않은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곡선이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출산 생존 곡선

A. 첫째아 출산 생존 곡선

B. 둘째아 출산 생존 곡선



첫째아 출산 생존 곡선을 보면 한국 여성의 생존 곡선이 가장 낮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 필리핀, 조선족, 중국의 순서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결혼 후 한국 여성들이 첫째아를 가장 빨리 낳고, 뒤이어서 베트남, 필리핀, 조선족, 중국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2>에서 로그-랭크 검정은 출신 국가별로 생존 곡선이 같다는 영가설을 통상의 0.05 α -수준에서 기각하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적어도 두 집단 사이에 생존 곡선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최소한 한국 여성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다시 말해, 가장 높은 생존 곡선을 보이고 있는 중국 여성과 출산율이 다를 것이다.

둘째아 출산 생존 곡선으로 가면 출신 국가별 생존 곡선의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여성이 곡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 여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상당히 떨어진 수준에서 나머지 삼개국의 여성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그림들은, 첫째아를 낳은 후에, 그나마 한국 여성들이 빨리 둘째아를 출산하고, 필리핀 여성이 약간 뒤이어 출산하며, 나머지 삼개국 여성들이 한참 뒤에 둘째아를 출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그-랭크 검정 결과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출신 국가별 둘째아 출산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시 <표 2>로 돌아가 몇몇 변수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혼전 자녀가 없는 경우에 첫째아든 둘째아든 출산율이 높은 것을 발견한다. 이 자료의 맥락에서 혼전 자녀는 한국 남편의 이전 혼인에 있어 자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새로운 결혼에서는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아내의 재혼 여부나 남편의 재혼 여부에 따라서도 출산율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로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들의 출산율이 기타 광역시나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들의 출산율보다 낮으며, 이런 경향은 첫째아나 둘째아 출산에서 공히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통계 모형 추정

지금까지의 분석은 출신 국가와 출산율 사이의 관계만을 살펴보았을 뿐 제3의 변수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표 3>과 <표 4>는

여타의 혼동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출신 국가별 출산 위험의 차이를 추정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표 3>의 첫째 자녀 출산 모형 결과를 보면, 콕스 모형과 이산시간 위험 모형 모두에서, 한국에 비해 조선족과 중국 여성의 출산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 가변수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도 작지 않아, 예를 들어, 콕스 모형의 조선족 여성에 있는 계수 -0.276 은 분석 시간 전반에 걸쳐 한국 여성에 비해 조선족 여성의 출산 위험이 약 $\exp(-0.276) \approx 0.759$ 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선족 여성의 출산 위험이 한국 여성에 비해 1/4정도 낮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여성의 계수는 더 낮아서 $\exp(-0.364) \approx 0.695$ 배 정도로 30%정도 이상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은 추정 계수가 음수라는 점에서 한국 여성보다 낮은 출산 위험을 보이고 있으나, 그 계수의 절대적 크기는 크지 않은 편이며, 표준오차 또한 작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4>에는 둘째 자녀출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조선족 여성의 출산 위험은 한국 여성보다 낮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콕스 모형의 계수 -0.430 은 조선족 여성의 출산 위험이 한국 여성에 비해 35%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여성에 놓인 계수들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표준오차가 적지 않아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에 반해 베트남 여성의 계수는 음수여서 한국 여성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현재 분석은 표본 추출에서 나오는 우연에 기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여성의 계수는 양수를 보이고 있어, 한국 여성들보다 높은 출산 위험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 계수의 표준오차 또한 작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과 결과 비교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회 이론에 따른 가설과 <표 3>과 <표 4>를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하면 어떤 가설들이 경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조선족의 출산율이 한국과 유사하지만 조선족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첫째 자녀출산 위험이

표 3. 첫째 자녀 출산 모형

	콕스 모형		이산시간 위험 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아내 출신 국가(vs. 한국)				
조선족	-0.276	(0.138) *	-0.355	(0.169) *
중국	-0.364	(0.137) **	-0.486	(0.166) **
베트남	-0.045	(0.105)	-0.062	(0.134)
필리핀	-0.073	(0.195)	-0.073	(0.247)
부부 특성				
혼인 년도: 2006년 혹은 이후	-0.002	(0.004)	-0.001	(0.006)
혼전 자녀 있음	-0.582	(0.133) ***	-0.734	(0.153) ***
아내 특성				
연령: 30대	-0.011	(0.005) *	-0.016	(0.006) *
교육수준(vs. 고등학교 이하)				
2-3년제 대학	-0.071	(0.035) *	-0.105	(0.044) *
4년제 대학	-0.006	(0.035)	-0.022	(0.044)
대학원 이상	-0.313	(0.064) ***	-0.424	(0.079) ***
재혼	-0.970	(0.168) ***	-1.142	(0.183) ***
취업	-0.194	(0.026) ***	-0.244	(0.033) ***
남편 특성				
연령: 30대 이상	0.010	(0.004) **	0.013	(0.005) **
교육수준(vs. 고등학교 이하)				
2-3년제 대학	-0.056	(0.039)	-0.074	(0.049)
4년제 대학	-0.120	(0.033) ***	-0.169	(0.041) ***
대학원 이상	-0.028	(0.054)	-0.033	(0.068)
재혼	-0.594	(0.147) ***	-0.745	(0.166) ***
취업	0.298	(0.086) ***	0.475	(0.106) ***
가구 특성				
거주 형태(vs. 자가)				
전세	0.054	(0.026) *	0.089	(0.033) **
월세	-0.024	(0.038)	-0.015	(0.047)
기타	0.072	(0.053)	0.103	(0.067)
월 평균 가구소득(vs. 200만원 이하)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0.090	(0.050)	-0.123	(0.064)
400만 원 초과	0.025	(0.054)	0.031	(0.069)
거주 지역(vs. 서울)				
광역시	0.289	(0.038) ***	0.375	(0.047) ***
기타	0.242	(0.034) ***	0.315	(0.042) ***
이산시간 위험 모형 관련 변수				
시간			1.496	(0.028) ***
시간 제곱			-0.216	(0.005) ***
절편			0.047	(11.329)

주: * < 0.05, ** < 0.01, *** < 0.001.

표 4. 둘째 자녀 출산 모형

	콕스 모형		이산시간 위험 모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아내 출신 국가(vs. 한국)				
조선족	-0.430	(0.218) *	-0.514	(0.238) *
중국	-0.339	(0.233)	-0.387	(0.255)
베트남	-0.172	(0.174)	-0.215	(0.195)
필리핀	0.160	(0.286)	0.190	(0.327)
부부 특성				
혼인 년도: 2006년 혹은 이후	0.020	(0.007) **	0.023	(0.008) **
혼전 자녀 있음	-1.477	(0.279) ***	-1.679	(0.291) ***
첫째 자녀 여아	-0.028	(0.030)	-0.034	(0.035)
아내 특성				
연령: 30대	-0.002	(0.007)	-0.004	(0.008)
교육수준(vs. 고등학교 이하)				
2-3년제 대학	-0.144	(0.047) **	-0.186	(0.054) ***
4년제 대학	-0.068	(0.046)	-0.106	(0.052) *
대학원 이상	-0.420	(0.094) ***	-0.540	(0.105) ***
재혼	-0.197	(0.270)	-0.211	(0.303)
취업	-0.181	(0.034) ***	-0.208	(0.039) ***
남편 특성				
연령: 30대 이상	-0.010	(0.005)	-0.009	(0.006)
교육수준(vs. 고등학교 이하)				
2-3년제 대학	0.147	(0.051) **	0.189	(0.059) **
4년제 대학	0.011	(0.045)	0.026	(0.051)
대학원 이상	-0.136	(0.071)	-0.126	(0.080)
재혼	-0.128	(0.236)	-0.132	(0.259)
취업	0.639	(0.154) ***	0.659	(0.167) ***
가구 특성				
거주 형태(vs. 자가)				
전세	-0.092	(0.036) **	-0.100	(0.041) *
월세	-0.161	(0.052) **	-0.199	(0.059) ***
기타	0.544	(0.064) ***	0.659	(0.077) ***
월 평균 가구소득(vs. 200만원 이하)				
20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	0.044	(0.076)	0.069	(0.086)
400만 원 초과	0.388	(0.080) ***	0.464	(0.091) ***
거주 지역(vs. 서울)				
광역시	0.204	(0.051) ***	0.230	(0.057) ***
기타	0.322	(0.046) ***	0.368	(0.052) ***
이산시간 위험 모형 관련 변수				
시간			1.425	(0.033) ***
시간 제공			-0.175	(0.005) ***
절편			-50.679	(16.017) **

주: * < 0.05, ** < 0.01, *** < 0.001.

한국 여성에 비해 낮고 둘째 자녀출산 위험 또한 낮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주자 출산력 이론의 한국지향선별, 사회화가설, 또는 혼란가설과 동질혼 이론의 부족가설이 교차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

중국이 한국과 유사한 출산율을 보이고, 중국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첫째아에서는 낮은 출산 위험을 둘째아에서는 유사한 출산 위험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연구 가설과 합치되는 지점이 없다. 하지만 둘째아에서 통계적 유의미도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출산 위험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선족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주자 출산력 이론의 한국지향선별, 사회화가설, 또는 혼란가설과 동질혼 이론의 부족가설이 만나는 지점이 이론적 예측력이 크다.

이에 반해 베트남과 필리핀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였고, 이들 국가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에 비해 첫째아나 둘째아 출산 위험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는 결과는 이주자 출산력 문헌에서 사회화가설과 동질혼 이론의 부족가설이 예측하는 방향과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주자 출산력 이론 중 사회화가설과 동질혼 이론의 부족가설이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주 여성들의 출산력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풀어쓰면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국가의 가치관과 규범을 담지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은,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질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출산율이 출신 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V. 요약 및 논의

이 글에서는 이주자 출산력 이론과 동질혼 이론 자원들을 이용하여 결혼이주 여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가설을 정립하고, 2012년 출산력조사와 같은 해 실시한 다문화조사를 분석한 후 이들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주자 출산력 이론에서는 두 가지 선별가설, 즉 이주특성선별 및 한국지향선별과 사회화가설, 적응가설, 그리고 혼란가설을 차용하였고, 동질혼 이론으로부터는 부족가설과 선별가설을 활용하였다. 다 문화조사로부터 조선족 출신 여성,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 출신 여성, 베트남 출신 여성,

필리핀 출신 여성을 추출하여 출산력조사로부터 얻은 한국 여성과 첫째 자녀 및 둘째 자녀의 출산 위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출산 위험의 경우 베트남 출신 여성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과 유사한 출산 위험을 보였으나 조선족 출신 여성과 중국 출신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출산 위험을 보였다. 둘째 자녀 출산 위험을 분석하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과 그리 다르지 않은 출산 위험을 보였으며, 조선족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낮은 출산 위험을 기록하였다. 중국 출신 여성의 경우 한국 여성보다 낮은 수준의 출산 위험을 보였으나 표준오차가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은 이주자 출산력 이론 중 사회화 이론과 동질혼 이론 중 부족가설을 교차하여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런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에 있어,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출신 국가에 따른 결혼이주 여성의 차별출산력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김두섭, 2008; 김한곤, 2011; 유정균, 2015), 필자가 아는 한, 한국을 대표하는 표본들을 활용하여 결혼한 한국 여성과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별 차별출산력을 연구한 논문은 이 글이 처음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주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나타나게 될 오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의 직접적인 선행 연구라 할 수 있는 Kim(2018)은 동일한 자료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면서 결혼이주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 위험은 한국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둘째 자녀 출산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발견을 보고한 바 있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전체 결혼이주 여성의 차별출산력을 구할 때 출신 국가별 사례수로 가중평균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출신 국가별 차이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 글의 분석은 또한 결혼이주 여성의 차별출산력을 이해할 때 이주자 출산력 이론과 동질혼 이론을 결합하여 이론화할 때 각 이론만을 사용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결과는 어느 하나의 이주자 출산력 가설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며, 동질혼 이론 중

부족가설이나 선별가설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질혼 이론 중 부족가설로만 설명하고자 한다면, 조선족 출신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첫째 자녀 출산 위험이 낮지만 필리핀 여성은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부족가설에 따르면 조선족 여성이 한국 여성과 동질적인 면이 많아, 예를 들어, 사용하는 언어가 같아 상호이해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조선족 여성의 출산 위험이 높다고 예측할 것이다. 하지만 이주자 출산력 이론 중 사회화가설과 결합하여, 태어나고 자라 여성이 사회화되었던 출신 국가의 출산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준다는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적 발견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흥미로운 발견들과 다양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 더해지면 관계상 여기서 언급하지 못하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주자 출산력 이론과 동질혼 이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합성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이주자 출산력 이론의 사회화가설과 동질혼 이론의 부족가설이 만나는 지점에서 두 힘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결합한다는 가정을 하였지만, 어느 특정 시점에서 둘 중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에 비해 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표 4>를 보면 둘째 자녀 출산에서 필리핀 출신 여성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 여성보다 높은 출산 위험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족가설이 약화되고 따라서 사회화가설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사례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유연하고 시간에 따라 동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가설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시점에서 추출한 횡단면 자료를 종단 특성을 요구하는 통계 모형으로 분석하였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특히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 김현식, 2017a; Morgan & Winship, 2007)의 입장에서 몇몇 혼동 변수, 예를 들어, 직업 유무나 가구소득과 같은 변수들이 결혼 시점 이후인 조사 시점에 측정된 것은, 이들이 혼동 변수이기 보다는 매개 변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 직업 유무나 가구소득 변수를 제외하고 회귀모형을 추정하면 첫째 자녀 출산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콕스 모형과 이산시간 위험 모형 모두에서 중국 출신 여성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달성하였다(요청 시 저자로부터 자료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당시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시점 당시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부분은 향후 더 많은 자료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면 종단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 연구는 한국 여성과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주자 출산력 이론에 더해 동질혼 이론을 활용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출산력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구성하고,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하던 선행 연구에서 벗어나 출신 국가별로 나타나는 차별 출산력에 주목했다는 점은 다문화 가족 출산력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다양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 설계를 통해 이 분야의 연구가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현식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통계학 석사 및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구학, 사회 통계, 청소년 일탈 등이며, 현재 한국의 출산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회 통계 교재를 집필 중이다. (E-mail: sochyunsik@khu.ac.kr)

참고문헌

- 김두섭. (2003). 연변 조선족사회의 최근 변화: 사회인구학적 접근. *한국인구학*, 26(2), pp.111-145.
- 김두섭. (2008).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와 사회적 자본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1(3), pp.1-26.
-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등.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한근. (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출산인식 및 출산행태의 차이. *민족문화논총*, 49, pp.567-596.
- 김현미, 김민정, 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 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24(1), pp.121-155.
- 김현식. (2015). 혼인이주자가족과 한국인가족의 출산력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35(1), pp.427-454.
- 김현식. (2017a). R을 활용한 기초 통계 분석.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현식. (2017b).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 40(3), pp.51-78.
- 남부현, 오정아. (2013).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 경험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pp.131-154.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등.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유삼현. (2017). 이주여성의 출산력 수준: 얽힌 실타래 풀기. *한국인구학*, 40(1), pp.29-55.
- 유정균. (2015).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아내의 출산수준 비교: 합계출산율과 출산간격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8(3), pp.49-73.
- 이명진. (2000). 한국사회의 선택혼: 시기별 추이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34(2), pp.297-323.
- 인민넷. (2017). 조선족 이제는 도시민족, 10년간 약 10만명 감소.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69621/15266944.html>에서 2017.11.20. 인출.
- 전기택, 정해숙, 김이선, 김영란, 주재선, 김혜영, 등.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17.3.22). **외국인과의 혼인**. <http://kosis.kr>에서 2017.12.2. 인출.
- Abbasi-Shavazi, M. J., & McDonald, P. (2000). Fertility and multiculturalism: Immigrant fertility in Australi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4(1), pp.215-242.
- Adserà, A., & Ferrer, A. (2015). Immigrants and demography: Marriage, divorce, and fertility. In Chiswick, B. R. & Miller, P. W. (ed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ume 1A* (pp.315-374). New York: North Holland.
- Bauer, G., & Kneip, T. (2013). Fertility from a couple perspective: A test of competing decision rules on proceptive behaviour.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3), pp.535-548.
- Chung, W., & Das Gupta, M. (2007). The decline of son preference in South Korea: The roles of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4), pp.757-783.
- Corijn, M., Liefbroer, A. C., & Gierveld, J. J. (1996). It takes two to tango, doesn't it: The influence of couple characteristics on the timing of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1), pp.117-126.
- Fu, V. K. (2008). Interracial-interethnic unions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3), pp.783-795.
- Kim, H. S. (2018). Fertility differentials between Korean and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14(1), pp.43-60.
- Kim, H-G., Kim, K., & Jun, K-H. (2012). Mate selection pattern and fertility differentials among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In Kim, D-S. (eds). *Cross-Border Marriage: Global Trends and Diversity*. (pp.235-278).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K. (2017). Trends and determinants of premarital conception: Love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26, pp.23-38.
- Morgan, S. L., & Winship, C. (2007). *Counterfactuals and causal inference: Methods*

- and principles for social resear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ger, J. D., & Willet, J. B. (2003). *Appli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Modeling change and event occurr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urra, C. A., & Boelter, J. M. (2013). Dating and mate selection. In Peterson & Bush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211-232). New York: Springer.
- Therneau, T. (2017.9.5). *Package 'Survival'*.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survival/survival.pdf>에서 2017.10.3. 인출.
- Therneau, T. M., & Grambsch, P. M. (2000). *Modeling survival data: Extending the Cox model*. New York: Springer.
- Thomson, E. (1997). Couple childbearing desires, intentions, and births. *Demography*, 34(3), pp.343-354.
- Vatterott, A. (2015). Socialisation or institutional context: What determines the first and second birth behavior of east-west German migrant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1(4), pp.383-415.
- World Bank. (2017). *Total fertility rates (births per woma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에서 2017.11.21. 인출.

A Study on Fertility Differentials among Korean Wives and Foreign Wives: Theorizing and Testing Effect Heterogeneities by Countries of Origin

Kim, Hyun Sik

(Kyung Hee University)

This article comes up with theoretical hypotheses about fertility differentials among Korean wives and foreign wives and, more specifically, about effect heterogeneities by their countries of origin. We formulated those hypotheses based on the mix of the immigrant fertility literature and the assortative mating literature, espousing the viewpoint of fertility from a couple perspective. Those hypotheses are tested by fitting data from the 2012 National Fertility Survey and the 2012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s and discrete-time hazard models. We find that Korean-Chinese and Chinese wives exhibited lower fertility hazards for the first childbirth than Korean wives while Vietnamese and Filipina wives registered similar levels with Korean wives. Regarding the second childbirth, only Korean-Chinese wives showed lower fertility hazards than Korean wives. These empirical findings support the theoretical intersection between the socialization hypothesis from the immigrant fertility literature and the deficit hypothesis from the assortative mating literature. We discus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our findings and lay out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Keywords: Foreign Wife, Fertility Differential, Couple Perspective, Immigrant Fertility, Assortative Mating